

경제

추석, 온누리상품권 잘나가네

광주·전남 올 196억3584만원 어치 판매 지난해의 5배... '기관 1시장' 결연 효과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인기를 끌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전통시장 살리기에 적극 나선데다 지자체와 기업, 단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구입해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7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8개월 동안 광주 22억4281만원, 전남 173억9303만원 등 총 196억3584만원 어치의 온누리상품권이 판매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38억4906만원과 비교하면 무려 5.1배가 늘어난 것이다. 또 지난해 1년동안 판매한 129억2572만원을 훌쩍 넘은 액수다.

온누리상품권 판매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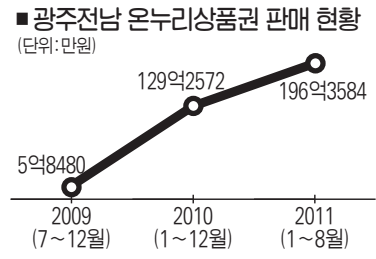
지난 2009년 7월 발행된 이후 지난 달 말까지 광주·전남에서만 총 331억4636만원 어치가 판매됐다.

발행 첫 해인 2009년(7~12월) 5억8480만원 어치가 판매됐고, 지난해에는 이보다 22배 증가한 129억2572만원 어치가 팔렸다.

이는 전통시장 애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시민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의 '기관 1시장' 자매결연도 크게 기여했다.

광주시 등 지자체를 비롯해 지역 공기업, 광주지방국세청, 전남지방우정청, 중소기업 관련 정부기관, 대학,



기차 광주공장,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광주은행 등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 수백 개 기관·단체가 전통시장과 결연을 맺고 온누리상품권을 단체 구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광주제철소는 최근 추석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2억4000만원 어치를 구입했다. 한편 광주전남본부도 최근 2925만원 어치를 사는 등 올들어서만 1억7000만원 어치를 구매했다. 광주상공회의소도 500만원 어치를 샀다.

또 온누리상품권으로 어려운 이웃

을 돕거나 감사의 선물을 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광주전남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을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시장과 점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할 때 물품을 사서 가져가지 말고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면 복지시설도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고 전통시장도 살아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온누리상품권은 1만원권과 5000원권이 있으며,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광주은행, 기업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개인이 현금으로 구매하면 3% 할인해준다.

가맹 시장은 전국적으로 1500여 곳에 달하며, 광주는 양동시장·말바우시장 등 16곳, 전남은 나주 영산포품물시장 등 40곳이다.

/*정목기자 jwpark@kwangju.co.kr



‘지역발전주간’ 행사 개막
‘2011 지역발전주간’이 7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오는 9일까지 계속되는 이 행사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지역기업, 지역민 등 지역발전 관계자들이 모여 지역발전정책들을 교류할 계획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마련된 서진종합건설의 ‘용봉 엘리체’ 주택전시관이 수요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초등생 ‘용돈기입장’ 배포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초등학생을 위한 ‘용돈기입장’을 7일부터 배포한다.

한국은행이 제작한 용돈기입장은 현 초등학교 5학년 실과교과서의 ‘용돈 아껴쓰기’편에 수록된 것과 동일한 양식으로 제작돼 교육현장 부교재는 물론 학생들의 저축습관과 합리적 소비 유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배포대상은 광주·전남지역 초등학교로 올해 한국은행 경제교육에 참여한 25개 학교에 우선 보급하며 용돈기입장이 필요한 학교와 개인에게는 개별 신청을 받아 나눠줄 계획이다.

용돈기입장 배포와 별도로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돈기입장 프로그램’과 교사 및 학부모가 ‘용돈기입장’ 기록을 지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사용자 안내서’도 한국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문의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기획홍보팀 062-601-1105, 1110.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용봉 엘리체 경쟁률 79대 1 ‘청약 대박’

서진종합건설, 430 가구 전체 순위 내 마감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분양 중인 서진종합건설의 ‘용봉 엘리체’가 최고 경쟁률 79대 1을 기록하는 등 ‘청약 대박’을 터뜨렸다.

7일 서진종합건설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진종합건설의 ‘용봉 엘리체’에 대한 청약접수를 마감한 결과, 최고 79.1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430가구 모두 순위 내 청약을 마감했다.

이 중 서진종합건설이 주력으로 내놓은 전용면적 59㎡(27평)A타입 235가구는 1순위 마감됐고, B타입 35가구도 2순위 마감됐다. 84㎡(36평) 160가구는 79.13대 1로 최고 광주에서 분양한 아파트 가운데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첨자 발표는 8일이며, 계약은 14일부터다.

이같은 청약대박은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중소형 평형대와 학군·환경이 뛰어난 위치, 편의시설, 내장재 등 4박자가 고루 갖춰져 때문으로 분석된다.

‘용봉 엘리체’는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중심에 있고, 서광주·용봉IC·순환도로가 인근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주변에는 화백초·고려중·용봉중·고려고·국제고·전남대 등의 10여 개가 넘는 학교가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단지에는 썬큰광장과 하늘마루, 미래나길, 중앙광장 등 특화시설을 갖췄다. 또 외부에서 바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을 마련해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 했다.

신송은 분양소장은 “용봉 엘리체는 북구지역에서 5년 만에 선보인 새 아파트”라며 “광복발코니 등 실속형 공간 혁신을 이룬데다 교통·문화·교육 등 뛰어난 주거 환경이 장점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분양 문의 062-573-4400. /박정목기자 jwpark@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833.46 (+66.75)
▲ 코스닥지수	479.17 (+13.82)
▲ 금리 (국고채 3년)	3.45% (+0.10)
▼ 원·달러 환율	1071.80원 (-3.1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박지현의 살림 레슨

■ 천연 조미료 만들기

바람 끝이 달라졌다. 아직 한낮은 여전한데도 예전처럼 눅눅하고 후끈한 기운은 없다.

완연한 가을이다. 열 집 광진이네는 마당에 수확한 고추를 말리느라 한창이다. 시골에서는 하루 햇볕도 그냥 버릴 수 없다. 바람 불지, 선선하지, 이맘쯤이면 무엇이라도 말려야 할 것 같다. 광진이네가 준 고추 한 바구니도 넣어놓았고 냉장고에 굴러다니는 양파와 당근 몇 토막도 밖으로 가져왔다. 천연 조미료를 만들기 위해서다. 시골이라 그때그때 양념 사러 가는 일이 번거로워 시작한 일이 이제는 음식맛을 내는데 꼭 필요한 일이 됐다.

장점은 또 있다. 말려 보관하기 때문에 냉장고 자리 차지하는 일이 확 줄어들고 쉽게 여러 가지를 혼합해 사용할 수 있으니 국물의 깊은 맛을 내는데 도움이 된다. 그 외에도 국물 내는데 시간이 줄어든다 보면 끓이듯 조리시간이 확 단축된다.

맛은 어떨까? 건어물과 육포가 국물맛을 내는데 크게 일조한다면 양배추나 양파, 당근 같은 채소류는 그 맛에 균형을 잡아주며 흥상가루 등은 국물맛을 깔끔하게,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

만드는 방법 역시 그리 어렵지 않다. 씻어서 잘 말리면 끝이기 때문이다. 혹은 말리는 일이 번거로우면 시중에 나와 있는 식재료 건조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전자레인지나 오븐에 말려도 된다. 그러나 그마저도 번거롭다면 말린 것을 사서 같이 두어도 될 것 같다.

나 역시 흥상과 표고, 새우 등은 말린 것을 사다가 방앗간에서 같이 이곳저곳 선물도 하고 남은 것은 냉동실에 넣어두고 먹는 중인데 나물 무칠 때도 넣고 된장국 끓일 때도 넣고 조림할 때도 넣는다.

물론 맛의 조화는 잘 따져 봐야 한다. 처음에는 하나씩 섞어 담아두고 먹다가 요즘은 적당히 가루를 혼합해 사용하는데 최근에 알게 된 어느 요리 연구가의 황금비율 분량을 보고 쌀가루와 흥상 가루도 쓰고 있다.



건어물·육포·채소류... 씻어서 바삭 말리면 병에 담아 추석 선물로

직접 말린다면 방법이 중요하다. 보통은 그냥 바삭 말리지만 해도 좋는데 쇠고기 같은 경우 핏물을 제거한 다음 설탕과 간장, 소금 등을 넣은 물에 담갔다가 물기를 제거하고 말려야 맛있다. 현미쌀가루는 텁텁한 국물맛을 깔끔하게 만든다는데, 물에 헹구고 말린 뒤 분쇄기에 갈아 고운 체에 수차례 걸러 사용한다. 두 고 먹물 것은 그릇에 담아 찬장에 두고 먹어도 좋지만 많은 양이라면 냉동고에 보관해야 하며 맛이 쉬 변하지 않아 좋다.

간추석이다. 요즘 과일 값이 비싸고 주머니 사정 생각하면 선물하기도 만만치 않다. 직접 만들어 예쁜 병에 담아 선물을 해도 좋을 듯하다.

/*담양역의 열두달 살림법 저자 jazzchants@hanmail.net

TIP 요리 연구가 김의순표 황금비율 ▲ 멸치맛 조미료=멸치가루 10, 새우가루 2, 다시마가루 2, 표고버섯가루 2, 현미쌀가루 1%, 양배추가루 1%, 흥상가루 1, 양파가루 1, 흥상가루 0.1 ▲쇠고기 조미료=쇠고기가루 10, 양파가루 2, 표고버섯가루 2, 새우가루 1, 다시마가루 1, 양배추가루 1, 현미쌀가루 1, 흥상가루 0.1 ▲해산물 조미료=복어가루 10, 새우가루 4%, 흥상가루 4%, 다시마가루 2, 오징어가루 2, 양파가루 1%, 현미쌀가루 1%, 양배추가루 1, 당근가루 0.2, 쌀가루 0.1, 흥상가루 0.1

신혼부부 241가구 전세 지원

LH 지역본부, 광주 5000만원·전남 4000만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가 신혼부부 전세 지원 241가구를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대상자로 선정된 도시저소득층 신혼부부가 입주할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에게 싸값에 임대하는 것이다.

대상 주택은 광주, 목포, 순천, 여수지역의 전용 85㎡ 이하(1인 가구 전용 40㎡ 이하)이며, 희망자는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격조건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말까지 주택을 선정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광주지역 5000만원, 전남지역 4000만원까지다. 입주자는 지원금액의 5%를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임대료로 지원금액의 2%를 내면 된다.

문의 LH 광주전남본부 주거복지부 062-380-0422~3. /박정목기자 jwpark@kwangju.co.kr

■ 새얼굴

“수출 역량있는 기업 아낌없는 지원”

한상렬 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장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 경제 활성화 및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한상렬(50) ‘K-sure’(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장은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며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아

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신임 지사장은 경기도 군포 출신으로 서강대를 졸업하고 1992년에 무역보험공사에 입사해 급여팀장, 리스크기획팀장 등을 역임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유·스퀘어사우나 24시

★ 각종 편의시설 : 수면실(침대)·피부샵(스포츠마사지)·인터넷·안마기·이용원·세신·세화

■ 위치: 유·스퀘어 광주종합터미널 2층 아이엘리시아 옆 ■ 주차안내: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 문의전화: 062) 352-4455